

서천

봄의 마을 공공성구축하기

디자인커미셔너
주대관
(사)문화도시연구소 대표

건축설계 및 디자인감리 총괄
윤희진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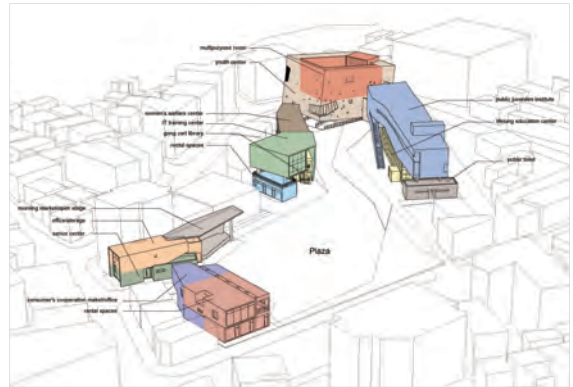
2012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사회공공 부문 대상
2012년 올해의 건축 best 7 수상작







‘봄의 마을’ 프로그램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도시건축에서의 공공공간은 서양의 것과 비교할 때 ‘광장’이라는 형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거나, 원래부터 있어 왔다 하더라도 ‘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그 성격과 역할을 달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공공공간은 다소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하다.

한편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현대적 도시공간은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이 이질적인 구조로 충돌하며, 역사·문화적 연속성을 지니지 못한 채 양적 팽창을 목표로 한 효율성이나 기능주의적 가치관에 의해 지배돼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주인인 사람들은 배제되거나 성과지향적 정책에 떠밀려 구성원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도시공간으로 변모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봄의 마을은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준공, 또는 사용에 이르기까지 주민·공무원·전문가 집단의 협업에 의한 결과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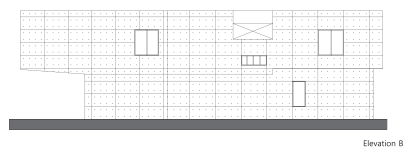
© 윤준환

‘봄의 마을’에서 광장의 의미 - 흔들리는 중심

‘봄의 마을’은 ‘문화장터로서의 광장’을 주요 개념으로 한다. 공공을 위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평생교육센터’ ‘청소년 공립학원’ ‘청소년 문화센터’ ‘장바구니 도서관’ ‘여성회관’ ‘노인정’ 이, 그리고 기존의 지역경제와 맞물리는 기능으로써 ‘도농 직거래 장터’ ‘새벽시장’ ‘유기농 생협’ ‘생계형 임대상가’ 등이 한 공간에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는 ‘봄의 마을’이 추구하는 문화중심 만들기의 주요 골격을 이룬다. 즉 계획은 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성 위주의 개별적 공간구성에서 시작하지만, 이들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긴밀한 연계와 네트

워크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줄임과 동시에 부분별 배타성을 극복하고 합리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간에서의 공공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원래 ‘봄의 마을’의 대지는 오래전부터 구시장이 형성돼 있던 지역으로, 2004년 도심 외곽으로 서천 신시장(특화시장)이 이전함에 따라 구도심 공동화가 일어나게 됐고, 슬럼화되고 열악한 구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의 논의가 시작됐다. 우여곡절 끝에 2006년 사단법인 문화도시연구소(대표 주대관·디자인 커미서너)에서 학술용역에 착수했는데, 이에 따르면





'봄의 마을'에서 건축의 의미

도시의 방, 콘크리트

'봄의 마을'은 이미 서천에서 랜드마크로서의 장소성을 지니고 있었다. 건축가는 기획의 단계에서 언급된 지역의 새로운 문화적 거점공간에 대한 디자인 커미셔너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를 건축적으로 정체성을 부여함에 있어서 광장을 '도시의 방'으로 제안하고자 했다. 아울러 바닥에서부터 건축물의 윤곽이 하늘과 맞닿은 부분까지 연속된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함으로써 광장을 일체화하려 했다. 즉 광장을 둘러싸는 시설물은 개별적이라기보다는 통합의 단위로 배열되며, 그 건축물의 입면들은 마치 방을 둘러친 벽처럼 광장의 경계를 이루도록 했다.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에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속가능성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에 건축가는 공공 건축물의 재료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로 내구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시간이 경과하며 변해 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재료, 불특정 다수의 거친 손길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견고한 재료를 선택하고자 했다. 그러다 보니 구조가 마감이고 동시에 공간을 한정하는데, 강성을 지닌 틀로서 콘크리트를 선택하게 됐다. 설계의 과정에서도 언급된 의견이지만, 혹자는 돌이나 나무 등 자연의 소재와 상반되는 것으로써 콘크리트의 부정적 이미지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달랐다. 원래 본질적으로 건축적 행위는 인공적이다. 과연 어느 누가 같은 양의 건축용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CO₂가 노출콘크리트의 경우보다도 적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자연을 이야기하고 자연에서 모티브를 찾지만 그를 표피적으로 다루는 행위는 자칫하면 오히려 '거짓 자연'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건축가는 공간·구조·재료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구축의 방식으로 노출콘크리트를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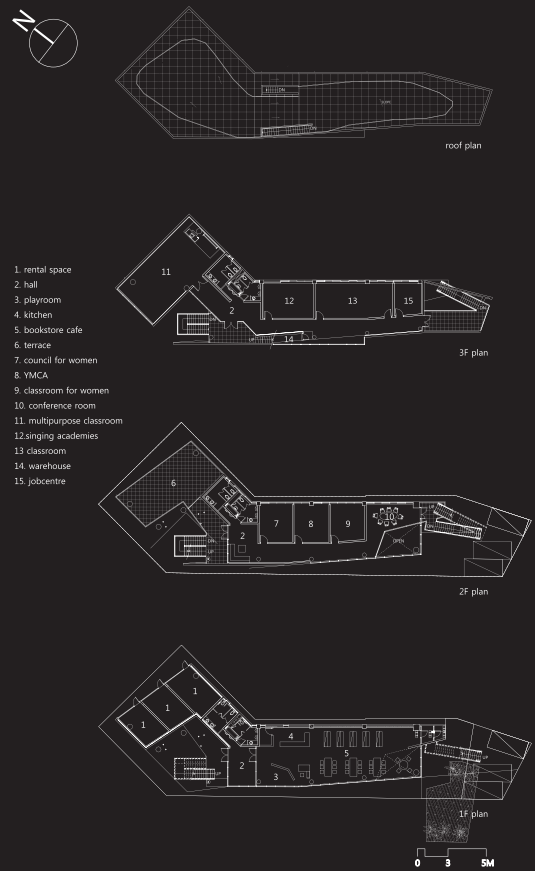
공간 구성에서의 전략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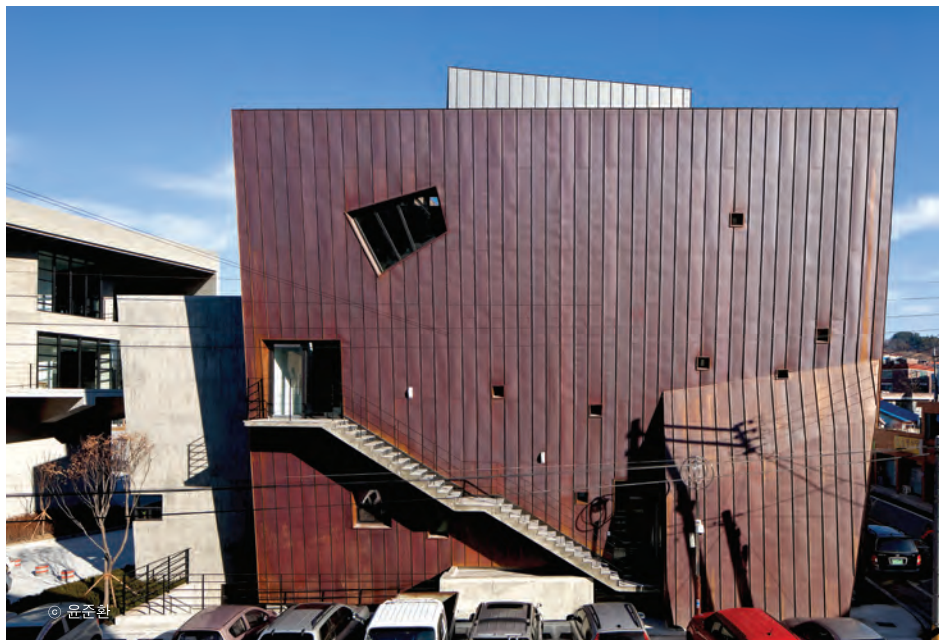
'봄의 마을'의 설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내·외부의 경계다. 공공성을 조절하는 장치로써, 그리고 도시와 건축의 연속성을 만들기 위해 건축가는 광장과 시설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다. 특히 지면과 접하는 1층 레벨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디자인 요소다. 다시 말하자면 1층의 건축면적(전용의 실내 바닥면적)이 상대적으로 상층부의 공간보다 적은 면적으로 배치되도록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광장과 건축물이 접하는 부분에서 크고 작은 외부공간을 형성해 인간의 행위를 담을 수 있도록 하고, 내외부의 경계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또 중심광장에서 깊이로의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해 그 시각적 접점에는 기울어진 상자 모양을 배치해 청소년문화센터가 중량감 있게 자리 잡도록 함으로써 공간에 심도를 만들었다. 굴곡진 광장을 통과해 동판으로 마감된 상자 하부로 유입되는 동선을 따라 공간은 압박하는 듯 긴장감을 조성하며, 도시와 건축의 경계를 모호하게 해 '연속된 도시' '집 속의 도시' '집 속의 집'을 만든다. '봄의 마을'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복합적으로 얹혀 리듬감 있는 공공의 장소를 제공하고, 그 도시의 방을 형성하는 윤곽은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역동성을 만들며 적극적인 비움을 형성한다.

과정으로 이해하고, 결과로써 말하기

서천 '봄의 마을' 만들기는 건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현대사회 대부분의 지방도시에서 나타나는 구도심 공동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는 여러 가지 가운데 이는 도시재생을 위한 하나의 시도이며, 공공축을 위한 과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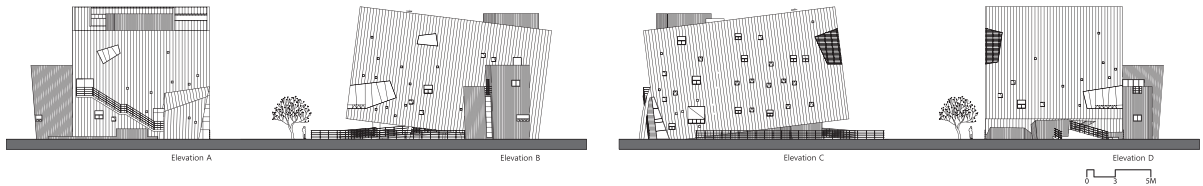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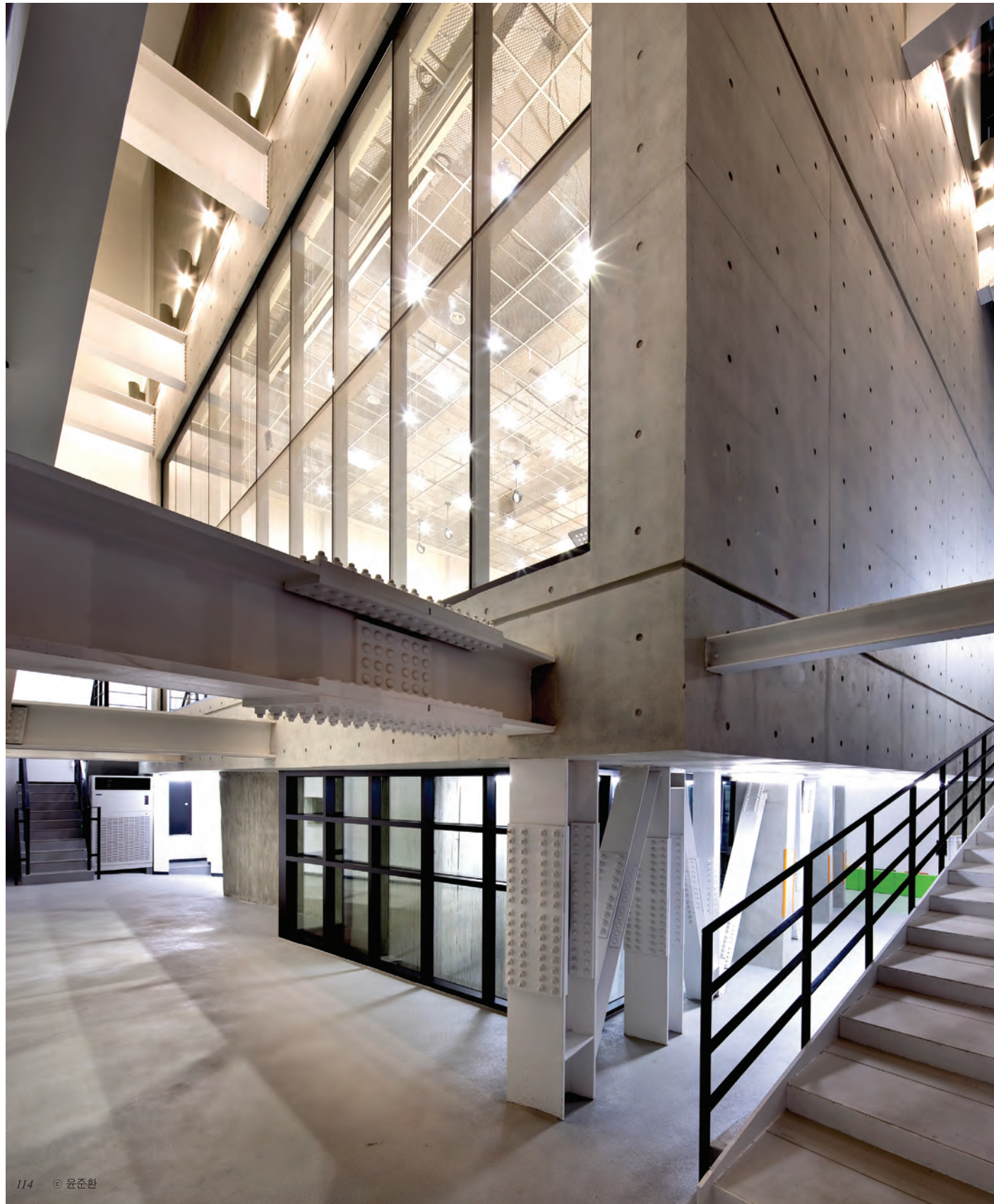
더욱이 여기 서천에서는 주민·공무원·전문가집단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재 절차와 노력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됐기에 더욱 소중한 실천적 경험이 됐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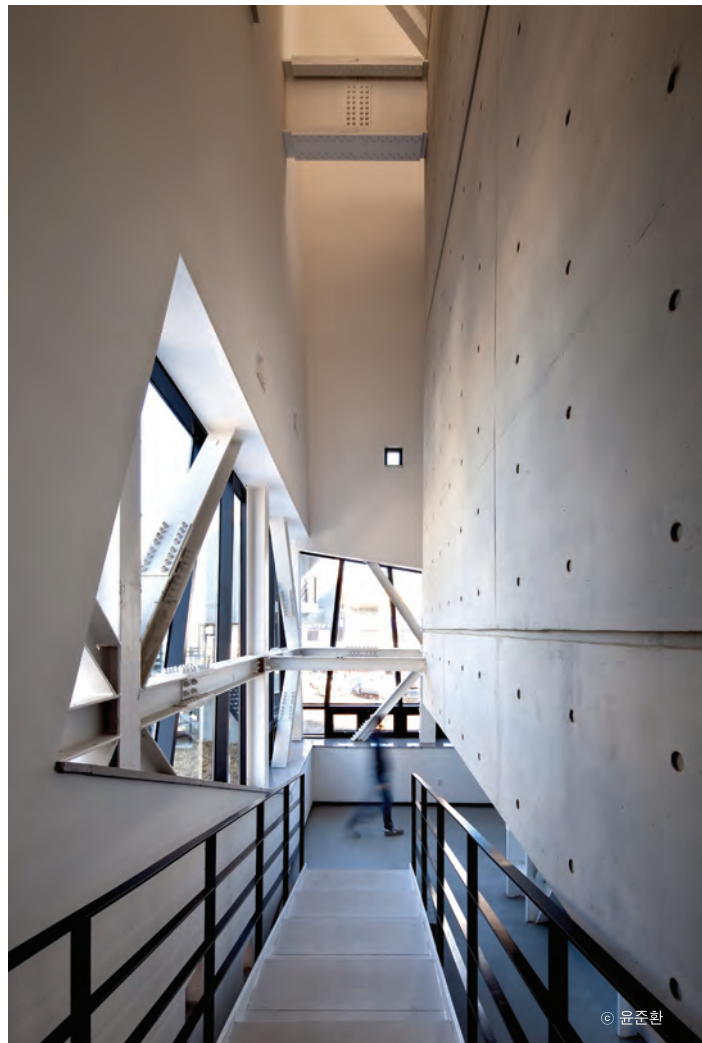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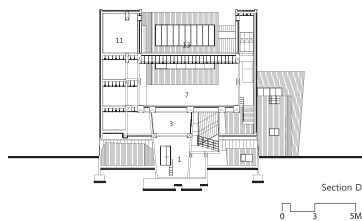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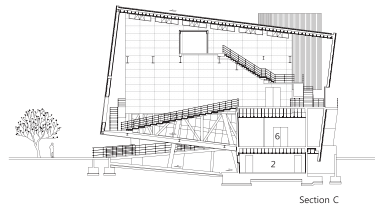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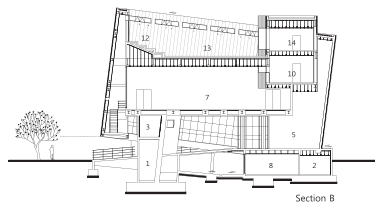
‘봄의 마을’에서는 건축주·설계자·시공자로 이어지는 기존의 시스템에 더해져 전체의 프로세스에서 절대적 역할을 한 또 다른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데, 커미셔너로 활약한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즉 주민들을 만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적 구조 사이에서

공공을 대변해 중재와 조정을 한 공공건축가 또는 그의 연구진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리라고 여겨진다. 이는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봄의 마을’은 하나의 결과로써가 아니라 지난 5년여의 모든 과정들을 포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그의 결실이 여타 도시에서의 공공공간 만들기의 작은 지평이 되기를 바란다. 본 프로젝트는 참여한 모든 작은 요소들의 사회적 집합체다.







건축가의 후기

대부분의 현장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예산부족의 문제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저예산’이라는 여건도 설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는 어려운 문제였다고보다는 불편한 조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3년여의 건설 과정에서 디자인 감리가 현실적으로 포함되지 못한 구조적 환경은 결과적으로 건축가에게 일방적인 열정과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설계자나 감리자의 경제적 실리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왜곡된 건축설계시장에 기인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본 프로젝트의 감리는 책임감리(최소 추정 용역비 3억~4억 원)가 생략되고, 현지 건축사에 의한 최소한의 법정감리(용역비 약 6,000만 원)로만 진행됐다. 대신에 설계자에게는 별도의 비용이 책정될 수 없는 현실에서, 설계자는 자비로 3년의 공사기간 중 1~2주에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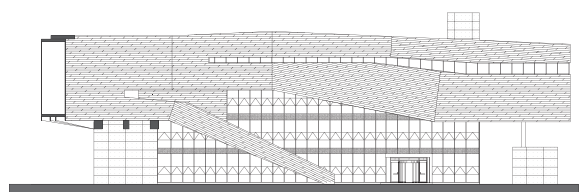
© 윤준환

씩 서울~서천을 오가며 예측불가능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풀어냈다. 그렇다고 시공사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굴지의 건설회사도 아니었고, 지역의 건설여건도 여의치 않았다.

이 프로젝트는 건축가의 지속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질적으로 현재의 결과를 얻기 힘들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디자인에 관한 한 군수를 비롯한 정책 결정자들의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열정 이상의 또 다른 방식으로 책임감을 갖게 됐으며, 건축가는 희생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성취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현장을 지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한두 번 개인적 경험으로 감내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래 건축물의 완성은 준공 시점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들의 행위로 채워졌을 때라고 생각한다. 즉 디자인의 관점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맞지 않으면 훌륭한 건축물로 완성될 수 없다. 최소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절한 조정을 통한 연착륙의 시점까지는 디자인 커미셔너



Elevation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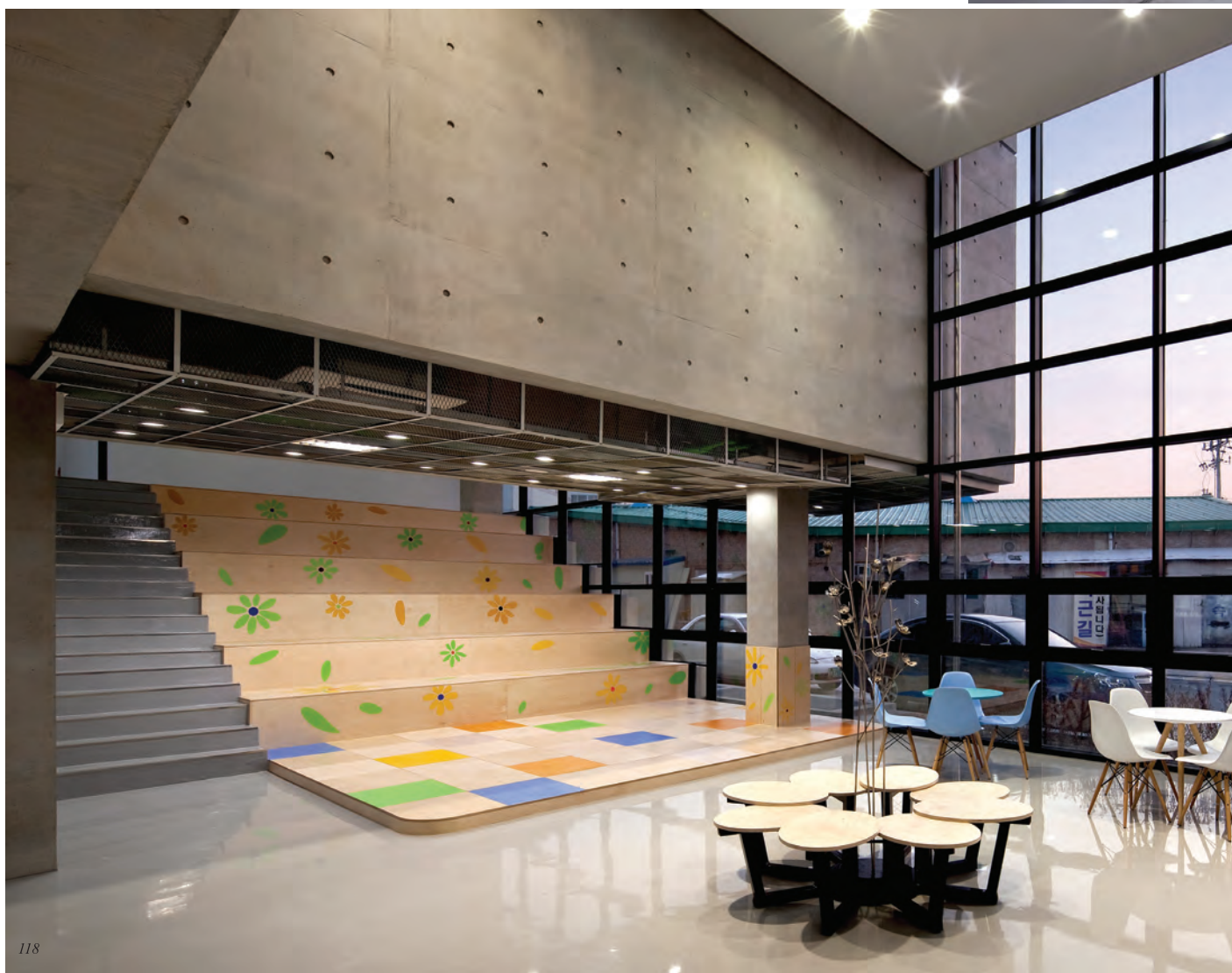
나 해당 건축가가 배제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의 인식은 건축물의 준공을 기점으로 기술자 또는 전문가가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 어느덧 준공 후 1년 반이 지난 요즘, 오랜만에 다니러 갔다가 망가져 가는 공간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다.

공공공간이 만들어지던 과정 속에서,

낭만적일 수많은 없는 현실 속에서 덧붙여진 건축가의 시선들을 적어본다.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기도 하다. (글. 윤희진)





기획의 단계

후적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주장들

종합시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시장
의류시장을 옮기는 문제
'상가를 건축해 분양하라'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라'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라'
공급과잉의 시대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설계의 단계

공공성과 공공공간

디자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략적 접근으로서의 설계
지키고 싶지 않은 컨텍스트
지역성에 대한 논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지속가능함을 위한 선택, 내구성

공사의 단계

건설현장에서의
다양한 논란과
사건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 업체 선정 -
공정성과 적합성의 사이 / 지역안배
'우리엔겐 광장보다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
'공사 중에도 우리는 장사를 계속해야 한다.
내 집 앞에서는 공사금지!'
3년 동안 민원과의 투쟁,
공기지연과 건설사의 파산
'감리는 설계에 따라오는 덤인가,
아니면 마음 약한 설계자의 업보인가?'

사용의 단계

주체의
연속성 결여,
철새는 날아가고...

지자체 -
담당공무원의 순환보직 / 일관성 결여,
재주는 OO이 부리고 돈은 XX이 벌고
전문가 -
공과 실, 무한의 책임, 프로그램 운용에서의 전
문가 배제
주민들 -
문화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 가치 추구의
사이에서 '내 집이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
나무를 뽑아 버리자'
관리자와 사용자의 인식의 차이 -
간판을 둘러싼 대립